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쥐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쥐’의 상징적 의미는 중의적이다. 교재 수록 부분의 흰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이데올로기와는 상관 없이 상처 받은 우리의 평범한 민족 [지문의 전략 부분에서 아버지는 처음에 피투성이-작익-가 된 흰쥐를 만난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의미이다.]
2. 격변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는 운명 [지문 수록 부분]
3. 소시민적 생존 [폭동의 와중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 준 그 흰쥐]

민홍이 잡으려는 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삶의 방향을 잃은 무기력한 삶 [민홍과 동일시-그래, 죽어라, 죽어. 이려고 더 살든 뭐 하니? 너 죽고 나 죽자]

앞부분의 줄거리

민홍은 대학에서 데모를 하다가 다친 후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가게를 망쳐 놓은 쥐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쥐를 보면 생전의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버지는 무능력한 남편으로 어머니에게 많은 구박을 받고 살았다. 가게에 쥐가 자주 출몰하자 아버지는 민홍의 오래된 기타의 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고양이를 풀어 쥐를 잡으려 하였다. 아버지는 전쟁 포로로 나온 사람이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문 앞의 감찰 완장[포로 수용소의 감독관]들 중 한 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내달리며 텅 명스럽게 내뱉었다. 딱 십 분을 주었으니 잘 생각들 해서 정하우다. 뒷집에서 풀려나 천천히 입으로 올라가는 손가락 사이에는 태를 먹어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서져 내릴 듯한 허연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다. 앙칼지게 불어제치는 호각 소리에 모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이것이 무슨 공공이숙인가 싶어 숨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오 분쯤 지나자 몇 사람이 후다닥 양쪽으로 오고 갔다. 그러자 서로 기다렸다는 듯 이쪽저쪽으로 뒤죽박죽 오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 앉았던 자리는 북으로 가는 자리였다. 머릿속이 헝딩그렇하게 비어 버려 망창히[생각이 아득함] 앉아 있던 아버지에게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그저 너무 좋다는 생각만 한심하게 다가왔다. 고개를 돌려 보니 수용소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이남 자리로 넘어가서는 아버지보고 그쪽에 남으면 죽으니 날래 넘어오라구 난리를 쳤다.[북의 우익분자들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 함.] 갑자기 겁이 더럭 올라붙은 아버지는 시적시적 이남 자리로 옮겨 갔다. 그러나 개인적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잔뼈가 굵은 고향이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을 부모처자 - 아버지는 이미 전쟁 전에 장가를 들었다 - 모습이 눈앞에 밟혔던 것이다.[고향에 대한 걱정] 그래서 이번에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이북 자리로 넘어갔다.[다시 선택하는 길] 그러나 자리에 앉고 보니 불현듯 물밀 쪽 같은 신세 이제 고향에 돌아가든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내적 갈등, 분단의 현실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소박한 우리 민족]

그만 하는 소리와 함께 호각이 뿅 울렸다. 아버지는 둔기로 뒷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져 왔다. 저 북도는 이미 단순한 북도가 아니라 삼팔선[분단을 상징] 바로 그것이었다. 아 이를 어쩐단 말이나.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차오르는 숨을 가누지 못해 고개를 쳐든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퀘셋 들보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희끄무레한 물체가 들어왔다. 폭동의 와중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 준 그 흰쥐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남 쪽으로 걸음을 떼고 있었다.[아버지가 남한 행을 선택하는 계기가 됨] 아버지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북도 사이로는 감찰 완장들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판국이였다. 아버지는 얼른 북도로 내려섰다. 너무 서두르는 통에 발목을 접질려 비틀거리자 지나가던 감찰 완장 하나가 이놈이 하며 엉덩이를 걷어차

다.

내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 어딜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루 못 가갔드란 말이야. 기거이 바로 사람이야. 웬 쥐였냐고? 글썄 모르지. 기러다 보니 맹탕 헛것이 눈에 끼었는지두. [분단의 시대 현실에서 어처구니 없게 삶을 선택하게 된 회한] 언젠가 돌아가겠지 하며 살다 보니시[실향민의 회한]……. 암만 생각해 봐두 꿈 같기두 하구……. 기리고 이젠 모르겠어……. 정짜루다 돌아가구 싶은 겐지 그럴 맘이 없는 겐지……. 늙으니까니 암만해두. [전쟁의 상처가 개인에게 준 상처와 혼란. 이제 남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북쪽의 가족을 마냥 그리워하는 실향민이 되지도, 철저하게 북쪽의 가족을 외면하고 남한에서 사는 정착민이 되지도 못하는 현실. 분단의 현실이 아버지 같은 실향민을 만들어 이도저도 못 하는, 회한의 삶을 살게 만든 것이다.]

짓물러진 눈자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민홍은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 덩어리가 솟구침을 느꼈다. 비껴 앉은 아버지의 야윈 잔등을 보면서 민홍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견뎌 온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대한 연민의 감정] 그 화석에 대한 일차적 기억은 앙상함이었다고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였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중략 부분의 줄거리> 대학생인 민홍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화상을 입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진 후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민홍은 어머니인 철원네로부터 쥐를 잡으라는 성화를 듣는다.

민홍은 철원네가 열고 나간 가게문을 닫기 위해 무심코 한 발을 방문턱에 올리는 순간 흠칫 몸이 굳어졌다. 그놈, 바로 철원네가 입버릇처럼 뇌던 그놈이 아주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가게 문턱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했다.

-에유, 어찌 된 애가 응,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까지 뛰어들었다는 [과거 대학 시절 데모하던 민홍의 모습] 애가 그래 그깟 쥐 한 마리를 못 잡는대서야 말이 되니? 기가 맥혀서. 이젠 그놈이 새끼까지 치고 아예 눌러앉으려는지 배가 이리 불룩하고 이만하게 늙은 놈이 등허리는 비루가 먹었는지 털이 훌쩍 벗겨져서는…….

민홍은 입을 조금 벌렸다.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애가. 정수리 끝까지 뻗쳐오른 기운 때문에 미세한 오한에 휩싸였다. 녀석은 민홍을 슬쩍 쳐다보았으나 느린 동작에는 변함이 없었다.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 녀석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손을 가만히 내려 냉장고 옆에 세워 둔 연탄집게를 들어 올렸다. 이거면 족하다. 민홍은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사정거리권 안으로 다가서는 민홍의 손아귀에서는 찌든한 땀이 배어 나왔다. 녀석이 버거운 뱃구레를 추스르며 문턱에 오르는 순간을 일격의 시기로 잡았다. 그래 서두를 건 없어. 민홍은 손아귀에서 힘을 빼고는 일부러 딴 데를 쳐다보는 여유를 부렸다.

“그래 죽여라 죽여. 이려고 더 살면 뭐 하니? 너 죽고 나 죽자.”

민홍의 눈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아버지처럼 쥐를 잡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민홍, 무기력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

아아, 나의 어리석음이어! [쥐를 놓쳐 버린 탄식]

민홍은 낮은 신음을 흘리며 황급히 뒤쫓아 나갔지만 허사였다. 녀석의 굼뜬 동작은 괜히 상대방을 자만하게 만들기 위한 위장술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것은 등허리의 털이 벗겨질 만큼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새끼를 뺨 암컷의 빈틈없고 대담한 산술이었으리라. 녀석은 문턱에 오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다람쥐보다 더 민첩한 동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민홍이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는 골목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빨려 들어가는 꼬리만 설핏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다. 민홍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우두망찰 서서 소리 없이 웃고 있는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 모르지 맹탕 헛것이 눈에 보였는지두. [무엇을 잡고자 한 것이 헛것이 아니었는지 탄식하던 아버지 - 쥐 한 마리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압축해서 보여 줌]

아버지의 늘썩한 [느리고 굼뜨다] 목소리가 귓전에 와 달라붙었다. 민홍은 찬찬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골목 저편에서 비닐봉지와 함께 다가온 바람이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달싹이고 갔다. 민홍은 입을 굳게 다물어 보았다. [굳은 결심, 깨달음] 그냥 그렇게 서 있고 싶었다. 불끈 쥐어 본 주먹에는 연탄집게가 알맞춤하게 들어 있었다. 웬지 느껴운 [어떠한 느낌이 북받쳐서 마음에 겹다.] 감정이 밀려오면서 저만치서 채 시작되지도 않은 겨울의 출구 [고난의 끝]가 보이는 듯했다. 그쪽은 맨발이었다.

▣ 작품해설

- ◆ 지은이 : 김소진
- ◆ 갈래 : 단편소설, 현대 소설
-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 배경 : 1990년대 도시 변두리 구멍가게
- ◆ 특징
 - ① 현재와 과거의 교차 편집
 - ② 호칭을 통한 거리두기의 방식 사용
- ◆ 주제 : 개인적 차원으로 내면화된 한국 현대사의 상처

◆ 구성

- 발단 : 민영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지난날을 회상한다.
- 전개 : 전쟁포로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는 쥐잡기에 집착하는데 번번히 실패한다.
- 위기 : 민홍은 시위에 참가했다가 화상을 입는데, 화가 난 철원네는 민홍이 애지중지하는 기타줄을 잘라 버린다.
- 절정 : 어느 겨울 메밀묵을 앞에 두고 아버지는 민홍에게 포로 시절 북한 대신에 흰쥐를 좇아 남한을 선택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 결말 : 민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게에 다시 나타난 쥐를 잡으려 하다 실패하는데, 이때 문득 무엇인가 자신을 울아매던 어떤 것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 등장 인물

■ 아버지 : 함경도 출신으로 반공포로로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다 남하했지만 그는 아무런 사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수물자 요원이 되고 포로가 되었다. 그렇다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지도 못하였다. 북쪽에 부모와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흰 쥐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아내와 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이고 주관이 강하지 못하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찮은 쥐잡기에 몰두하고 번번이 잡지도 못하면서도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 고지식함과 강한 고집스러움도 가지고 있다. 결국 폐암으로 인해 63세의 나이로 죽는다.

■ 민홍(아들) :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인물로 학생이며 아버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무능력하고 답답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 가족에 대해 정이 있지 않은 인물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에 대해 연민과 송구함을 느끼며 그를 이해하는 면모를 보인다.

■ 철원네 : 민홍의 어머니이며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샅바느질도 한다. 말이 거칠고 무능력한 남편을 극도로 싫어하며 그에 대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고 남의 부부싸움을 말리고 아프신 할머니를 위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 줄거리

민홍은 전쟁 포로 출신의 아버지와 억척스러운 어머니를 두었다. 그들 가족은 도시 변두리의 한 지역에서 구멍가게를 꾸리며 살아간다. 그들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척박하기 그지없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이고 도회적인 삶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온갖 인간 군상이 밀집한 동네가 그들의 삶의 터전인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가게에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들어 놓은 물건을 먹어치우는 쥐가 그것이다. 아버지는 유달리 쥐를 잡는 데 집착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동원한 방법은 대마다 실패하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온갖 시달림을 받는다. 어느 날 아버지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민홍과 함께 양념장을 두른 메밀묵을 먹다가 갑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는다. 마음 한 켠에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민홍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

민홍은 대학생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가 화상을 당한 후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어머니에게 이러한 민홍의 모습은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두 사람은 구박에 시달린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게에 다시 쥐가 나타난다. 문득 민홍은 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그 역시 쥐잡기에 실패하는데, 이때 문득 무엇인가 자신을 움아매던 어떤 것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 이해와 감상

작가의 문단 데뷔작이면서 1991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당선작인 <쥐잡기>는 도시 주변 번두리의 서민 밀집 지역에서 쥐잡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 번의 해프닝을 소재로 하고 있다. '쥐'는 '민홍'과 '아버지'의 삶에 개입하여 그것을 흔들어 놓는 존재로 그려진다. 아버지의 '쥐'에 대한 내력과 개인사가 전쟁과 분단의 아픔과 상처와 결합되면서, 분단 후 계속되고 있는 아버지의 내면적 고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무능력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은, 시위 사건으로 화상을 통해 소설책이나 뒤적이거나 억척스런 어머니에게 핍박을 받는 민홍의 일상사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북에 가족을 두고 남에 남은 까닭에 한평생 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회상하며, 그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되는 이들의 심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자신이 남쪽에 남은 계기가 된 흰쥐에 대한 증오로 인해 가게를 망쳐 놓은 쥐를 잡아 잔인하게 죽이는 아버지의 행위는 북에 남겨 두고 온 처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恨)이 투영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민홍은 민주화 투쟁을 경험했으며 90년대를 살고 있다. 한 장의 사진과 쥐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경험했던 6.25 전쟁에 얽힌 이야기를 회상하고 다시 경험한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남쪽을 선택했던 아버지의 회상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한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의 '아버지'는 이데올로기란 선택을 가장한 정치적 억압에 불과하며 이데올로기에 유리당한 상태에서의 선택이란 언어도단일 뿐임을 보여 주고 있다. '흰쥐'가 헛 것이었음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자조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잔인하게 민중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이 작품은 '아버지께 부치는 제문(祭文)'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작품이다. 반공 포로 출신으로 남한을 선택했지만 일생동안 가난을 겪어졌던 아버지에 대해 작가는 "철없는 한때 아버지의 무능력이라는 게 일종의 재앙으로 까지 여겨졌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제목이기도 하면서 줄거리 전개에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쥐잡기'는 다수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외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는 아버지가 가게의 물건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쥐를 잡기 위한 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고양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쥐약을 놓아보기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결국 면밀한 관찰 끝에 쥐를 잡는데 성공하지만, 아무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다 해도 그동안 쥐로 인해서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런 걸로 드러난 쥐잡기 양상도 있지만, 소설 속에 숨겨져 있는 '쥐잡기'도 있다. 그것은 주인공인 '민홍'이 시위를 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쥐잡기'에 등장하는 쥐는 세 마리이다. 현재의 민홍이 대결하고 있는 쥐가 있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구멍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벌이던 쥐가 있고, 또 그 이전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아버지로 하여금 남쪽을 선택하게 했던 쥐가 있다. "쥐새끼"같은 놈들에게 휘둘리며 "쥐"처럼 응색한 삶을 영위하는 소시민들은 결국 "쥐"를

잡지 못한다.

◆ 김소진 소설은 이념이나 계급의 입장을 반영한 관념의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 생활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육체의 언어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김소진 소설의 매력에 대해 '속담스런 민중어와 개성적인 묘사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평론가 김윤식)는 말이 나왔다. '조봇한 공간 속에 간혀 경성드뭉한 대머리를 인 채 움푹 꺼져 대꼰한 눈자위로 방 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라거나 '노름이라면 이골이 났다는 노름방의 도꼭지격인 짝눈도 육통이 터질 노릇이라며' 등등 활달한 토박이말 구사로 인해 김소진은 채만식, 김유정, 박경리, 김주영, 이문구, 최명희 등과 함께 토박이말 사전 편찬자들이 높이 평가했던 작가들 중의 하나로 꼽혔다.

■ 아버지의 삶의 의미

아버지의 무기력한 삶 이면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커다란 운명이 놓여 있다. 28세의 전쟁 포로였던 아버지는 이북에 부모와 처자를 두고서도 남쪽을 선택한다. 아버지의 남쪽 선택이 특정 사상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사상과 무관한, 겁에 질린 아버지란 바로 무사상, 무의지의 표정이다. 사상의 준엄성을 결여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삶 자체이다. <쥐잡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어디간들 마찬가지라 함은 바로 삶의 당위성을 말함일 것이다. 삶의 당위 앞에서 남과 북을 가르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 사상의 차별성이나 우열성은 관념의 조작일 뿐이다. 남쪽이나 북쪽의 선택을 의지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목숨이 걸린 판국'이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매를 건디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처신' 일 터였다. 그는 힘센 자의 권력, 가진 자의 물질적 성공에 부정적으로 대항하기보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즉 자신의 상실과 실패, 고통과 굴욕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현실에 적응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남쪽 선택을 터무니없게도 '흰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광장>과 <쥐잡기>의 비교

(1) 주인공의 처지 : (광장)의 이명준은 철학도로서 지식인이다. 그는 남과 북 양 체제 중 어느 편이 보다 나은 쪽인가를 고민한다. 그에 비해 (쥐잡기)의 아버지는 반강제로 전쟁에 끌려나와 포로가 된 평범한 민중이다. 그는 남과 북 어느 체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신념이 없는데, 그에게는 그날그날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할 뿐이다.

(2) 주인공의 방향 : (광장)의 이명준은 광장이 없는 남을 버리고 북으로 갔다가 밀실이 없는 북에 실망한다. 한국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이명준은 양쪽을 모두 버리고 중립국을 택한다. 그에 비해 (쥐잡기)의 아버지는 북한 사람으로 전쟁에 끌려왔다. 포로가 되어 별다른 이유 없이 남쪽을 택한다.

(3) 주제 의식의 차이 : (광장)은 이명준의 방향을 통해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전달한다. 그에 비해 (쥐잡기)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는 헛것에 가까운 것으로 우연으로 가득 찬 삶이 개인의 선택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흰쥐'의 의미◆

이 소설에서 '흰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육박해 오는 '정해진 운명' 일 것이며, 이 운명의 순간을 향해 아버지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이란 잔뜩 겁에 질린 표정' 뿐이다. 왜냐하면 그 운명이란 압도적인 죽음의 신이며, 그 신에 대해 겁먹기 외에 달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쥐 이야기기 앞에 닥친 현실에 대한 전적인 무지를 뜻한다고 볼 수 없따. 오히려 그것은 무?지를 가장하는 것처

림 보인다. 따라서 그 쥐에 대해 '땡탕 헛것' 이라고 말하는 것은 운명 곧 자기 밖의 낯선 무엇,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강제되는 터무니 없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절대적인 상황 앞에서 눈에 헛것이 끼었다고 말하

는 것은 그의 생존 전략이다. 헛것 보기는 결국 자기 앞의 엄혹한 현실을 헛것으로 보기이며, 이로써 아버지는 죽음 앞에서 승리한 것이다.

소설 이해의 핵심

1. 아버지 : 분단의 현실로 평생 실향민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그런 한을 안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다.
2. 나 : 학생운동을 했으나 화상을 입는다. 뭔가 하고자 했는데 시련을 겪자 삶의 방향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아버지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
3. 아버지 : 쥐를 죽인다. - 무기력한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 자신을 이렇게 만든 시대 현실에 대한 원망
4. 나 : 쥐를 쫓는다. - 무기력한, 인생을 갉아먹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탈출.